

마을 쪽으로는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 노예들처럼 두터운 청색 벵골산 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 아니 그런데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가정의 행복만 한 가치가 있는가? 바깥에서 다소 인짱은 일이 생기는 날이면, 두 사람은 그만큼 더 기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네. 마리와 도맹그는 이 언덕에서 왕 굴나무길 위로 두 사람이 보이자마자 산 밑까지 달려가 그녀들이 산을 오르는 것을 돕곤 했지. 그러면 마르그리트와 라 투르 부인은 제 집 노예들의 눈에서 재회의 기쁨을 읽곤 했네. 집은 깨끗했고, 자유가 있었으며, 본인들 스스로의 노동 외에는 어디에도 신세지지 않고 꾸린 가산과, 열성 가득하고 정 넘치는 하인들이 있었지. 엇비슷한 아픔을 겪은 뒤 똑같이 궁핍한 처지에 하나로 뭉친 두 사람은, 서로를 친구, 동반자, 언니동생과 같은 애칭으로 부르면서, 소망도, 이해(利害)도, 식사도 하나로 맞춰갔네. 그녀들 사이에는 모든 것이 공유되었지. 단지 지난날의 불길이 우정의 불꽃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영혼 속에 깨어나는 날이면, 정결한 생활 방식에 힘입은 순수한 신앙이 있어, 이 땅 위엔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불씨처럼 그녀들을 다른 삶으로 인도했다네.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의무는 두 여인이 일군 가족공동체에 더 큰 행복을 더해주었네. 상호 간의 우정은 똑같이 불운했던 사랑의 결실인 제 자식들 앞에서 더욱 커져갔던